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 소재
지도를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재 은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 소재

지도를 중심으로 -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재 은

<논 문 개 요>

지도에 나타난 국경의 위치와 형태는 한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한다. 서양고지도를 통해 한·중 국경의 위치와 북방영토의 형태를 접근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고 지도에 나타난 한국관련 표기는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호, 동해에 대한 명칭, 독도, 북방영토 등의 문제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15세기 지리상의 발견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서양 고지도에는 한국의 존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 후 일부 지도를 제외하고는 설령 한국이 표시되었더라도 17세기 중엽까지 섬으로 되어 있거나 도시와 지방이름에 오류가 많았다. 본 연구는 한·중 국경에 관한 관심이 근대 영토의식의 성장 및 제국주의 대두 또 민족주의 의식 성장과 함께 더불어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가 당시 제작된 서양의 고지도에 특히 한중 양국 국경지대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이용한 기본 자료들은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www.tmecca.co.kr)에 게재되어 서비스도 되고 있는 약 1000여종의 서양 고지도들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총 498점의 지도를 제작시기·제작연도·제작국가와 한·중간의 경계선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들 대부분 지도의 유형은 아시아, 동아시아 및 중국지도로 비교적 우리나라를 상세히 표현한 지도를 이용하였다. 지도의 내용에는 한·중간의 경계가 나타나 있는 것을 선정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한·중간의 경계는 압록·두만강부근경계로 총 498종 중 226점을 차지하였으며, 간도포함경계는 총 182점으로 압록강·두만강부근경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이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외에 봉금지역이 표시된 지도는 총 35점, 국경선 표시가 없는 지도는 총 45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는 간도를 부분적이거나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표기는 18세기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후로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중간에 나타난 국경선의 유형을 세분화한 결과 압록·두만강 경계 유형, 레지(Regis)선 경계 유형,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 타듀(Tardieu)선 경계 유형, 보웬(Bowen)선 경계 유형, 본느(Bonne)선 경계 유형, 티즈데일(H.Teesdale)선 경계 유형, 봉금지역 표시 경계 유형,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 총 아홉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에 게재된 498종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제작시기와 국가별로 한·중간의 국경선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의의가 있으며, 영토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간도문제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제2장 선행연구	8
1. 국내 학계의 연구	8
2. 중국 측의 입장	12
3. 제3국의 입장	13
4. 기존연구에 나타난 한·중 경계	17
1) 레지(Regis)선	17
2) 당빌(d'Anville)선	19
3) 본느(Bonne)선	22

제3장 서양고지도상의 한·중 경계 유형·····	23
1. 티메카웹사이트상의 지도 분석 개괄·····	23
2. 압록·두만강 경계 유형·····	32
3. 레지(Regis)선 경계 유형·····	36
4.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	39
5. 타듀(Tardieu)선 경계 유형·····	43
6. 보웬(Bowen)선 경계 유형·····	46
7. 본느(Bonne)선 경계 유형·····	50
8. 티즈데일(H.Teesdale)선 경계 유형·····	54
9. 봉금지역 표시 경계·····	57
10.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	60

제4장 북방영토의 주요지명

-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지명 - ·····	64
---------------------------	----

제5장 결론·····	72
-------------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티메카(www.tmecca.co.kr)웹사이트상의 지도 현황·····	6
표 2. 당빌선으로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의 목록·····	21
표 3. 본느선으로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의 목록·····	22
표 4. 한·중간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 지도의 제작국가·시기별 현황·····	26
표 5. 간도 포함 경계 지도의 제작 국가·시기별 현황·····	28

<그 립 목 차>

그림 1. www.tmecca.co.kr 사이트의 첫 화면·····	3
그림 2. www.tmecca.co.kr 사이트의 검색 화면·····	4
그림 3. www.tmecca.co.kr 사이트의 지도서비스·····	5
그림 4. 간도지역위치·····	24
그림 5. 관동, 요동 및 한국지도(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25
그림 6. 아시아지도(Modern Map and Chart;Asian Map)·····	27

그림 7.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중 간의 경계 유형 분류·····	31
그림 8. 중국지도(China)·····	33
그림 9. 한국지도(Carte de Corée)·····	34
그림 10. 한국지도(Map of Cho-Sen or Korea)·····	35
그림 11. 카타이지도(Carte du Katay ou Empire de Kin)·····	37
그림 12. 타르타르지도(Tartary)·····	37
그림 13.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	38
그림 14. 타르타르지도(Tartary)·····	38
그림 15.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40
그림 16. 아시아지도(Asia)·····	41
그림 17. 중국제국지도(l'Empire de la Chine Dresse d'apres les Cartes de l'Atlas Chinois)·····	41
그림 18. 중국제국지도(The Empire of China, with its Principal Divisions)·	42
그림 19.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 from the Latest Authorites)·	42
그림 20. 동아시아지도(China Nebst Corea)·····	44
그림 21. 중국지도(Cart de la Empire...)·····	44
그림 22. 중국제국·조선왕국·일본열도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45
그림 23. 아시아지도(Modern Map and Chart;Asian Map)·····	47
그림 24. 아시아지도(Scale Mensurarum Reductarum Mediarum)·····	48
그림 25. 아시아지도(A New and Accurate Map of Asia)·····	48
그림 26. 아시아지도(An Accurate Map of Asia)·····	49
그림 27. 동아시아지도(China and the Birman Empire with Parts of Cochin-China and Siam)·····	49

그림 28. 동아시아지도(Carte la plus Generale et qui Comprend la Chine, la Tartarie Chinoise, et le Tibet)·····	51
그림 29. 동아시아지도(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Plus Voisines)·····	51
그림 30. 중국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52
그림 31. 중국지도(la Tartaria Chinese)·····	52
그림 32. 중국·한국·일본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53
그림 33. 아시아지도(Asia)·····	55
그림 34. 로마교구도·····	55
그림 35. 동아시아지도(China and Japan)·····	56
그림 36. 아시아지도(Asia)·····	56
그림 37. 중국지도(L'Empire de la Chine)·····	59
그림 38. 조선전도(L'Empire de la Corée)·····	59
그림 39. 아시아지도(An accurate map of Asia)·····	61
그림 40. 동아시아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	61
그림 41. 아시아지도(Carte des Parties Nord et Est de L'Asie qui Comprend Les Cotes de la Russie Aslatique le)·····	62
그림 42. 아시아지도(Nounelle Representation des Cotes Nord et Est de l'Asie)·····	62
그림 43. 한국지도(China Nebst Corea und den Benachbarten Laendern der Tartarey. aus Denen Karten Genommen)·····	63
그림 44. 한국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u-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ee)·····	66

그림 45. 관동, 요동 및 한국지도(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67
그림 46. 동아시아지도(China, Contains 15 Subject Provinces, including the 2 Islands of Hainan / Formosa and the Tributary).....	69
그림 47. 동아시아지도(China).....	70
그림 48. 동아시아지도(Asia-Atlas(Far East)-General).....	71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한·중 국경에 관한 관심이 근대·영토의식의 성장과 제국주의의 대두 또한 민족주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가 당시 제작된 서양의 고지도에 특히 한중 양국 국경지대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는 지역 및 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인된 그림이다.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¹⁾ 특히 역사시대의 공간(公刊)현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이다.

고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국토와 지역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으며, 제작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과 회화적 분위기, 나아가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²⁾ 따라서 지도를 역사 해석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다가 올 한국의 통일을 대비해 간도와 관련된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다.

고지도는 과거를 읽는 키워드이자 미래를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서양의 과거 역사서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았으며, 어떻게 인식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와 함께 그들이 제작한 고지도를 통해 서양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고지도는 타국에 대한 당대의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제작한 인식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국관련 표기는 상당히 중요하

1) 양보경, 1997. “ 고지도와 역사 연구, ” 역사와 현실 제26권, 한국역사연구회, p. 263.

2) 양보경, 1996, “ 고지도 보급 사업의 현황과 전망, ” 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통권 제 173호, 국토연구원, p. 65.

며, 우리나라의 국호, 동해에 대한 명칭, 독도, 북방영토 등의 영토분쟁문제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5세기 지구상의 발견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서양 고지도에는 한국의 존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 후 일부 지도를 제외하고는 설령 한국이 표시되었더라도 17세기 중엽까지는 점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도시와 지방 이름에 오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로 변모하였고 미래의 영토분쟁 등에 대비한 중요한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고지도에 대한 연구 및 수집은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로, 정인철³⁾은 이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서양고지도 소장처로는 혜정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독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토지주택박물관 등도 점차 많은 서양고지도가 수집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구에 이용하기는 접근의 어려움, 자료 확보량의 문제, 서양 고지도와 영토문제를 연구한 연구 성과들이 아직 미비한 편이며, 지리학 분야에서의 접근이 시급하다.

3) 정인철, 2008. “서양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412~431.

정인철, 2010,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표현 유형,”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pp. 165~183.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본 자료들은 현재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서양의 고지도들이다.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www.tmecca.co.kr)는 동·서양지도에 관심 있는 일반 사용자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양 서적 관련 전문 웹사이트이다(그림 1).



그림 1. www.tmecca.co.kr 사이트의 첫 화면

본 연구에서는 파인드코리아⁴⁾를 운영하는 티메카코리아(www.tmecca.co.kr)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의 고지도를 검색하였다. 지도는 지역(Region)별로 Asia map, China & Korea, Europe & Asia, Far East, Japan Only, Japan & Korea, Korea Only, World map 의 여덟 지역으로 나누어 제작시기별, 소장처별, 동해·울릉도 표기 유무, 동해 표기 등을 각각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그림 2).

Region	Pub Date	Dokdo/Ulungdo	DongHae	Collection
<input type="checkbox"/> ASIA MAP	<input type="checkbox"/> 1500~1550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ETC	<input type="checkbox"/> British Library
<input type="checkbox"/> China & Korea	<input type="checkbox"/> 1550~1600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N/A	<input type="checkbox"/> University of Cambridge
<input type="checkbox"/> Europe & Asia	<input type="checkbox"/> 1600~1650		<input type="checkbox"/> Oriental Sea (Mar, Mer, Mare, Etc.)	<input type="checkbox"/> HJ Museum
<input type="checkbox"/> Far East	<input type="checkbox"/> 1650~1700		<input type="checkbox"/> Sea (Mar, Mer, Mare, Etc.) of China	<input type="checkbox"/> Seoul Museum of History
<input type="checkbox"/> Japan Only	<input type="checkbox"/> 1700~1750		<input type="checkbox"/> Sea (Mar, Mer, Mare, Etc.) of Japan	<input type="checkbox"/>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input type="checkbox"/> Japan & Korea	<input type="checkbox"/> 1750~1800		<input type="checkbox"/> Sea (Mar, Mer, Mare, Etc.) of Korea	<input type="checkbox"/> US Library of Congress
<input type="checkbox"/> Korea Only	<input type="checkbox"/> 1800~1850		<input type="checkbox"/> Sea (Mar, Mer, Mare, Etc.) of Korea/Japan	<input type="checkbox"/> Russian Federation Library
<input type="checkbox"/> WORLD MAP	<input type="checkbox"/> 1850~1900			<input type="checkbox"/> JAPAN (Lutz Walter's Book, 1994)
	<input type="checkbox"/> 1900~1950			<input type="checkbox"/> USC Library
				<input type="checkbox"/> Korea Map Museum (NGII)
				<input type="checkbox"/> National Library of Korea
				<input type="checkbox"/> National Assembly Library
				<input type="checkbox"/> Hong Kong Univ &

그림 2.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www.tmecca.co.kr)의 검색 화면

4) 파인드코리아(www.findcorea.com)사이트는 티메카(www.tmecca.co.kr)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고지도 관련 사이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축척지도와 대축척지도로 나누어 고지도를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기능이 있는 티메카(www.tmecca.co.kr) 웹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이는 개인 수집가가 미국 의회도서관과 대학들 유럽과 미국의 고지도 상점과 주요 도서관을 돌면서 약 4,050여 종의 고지도 목록과 이미지들 그리고 지도관련 설명을 모은 자료 중 일부를 정리해 2009년 9월에 정식 공개하였다.(미주 한국일보 2009년 9월 30일 기사 중 일부)

지도의 상세 설명에는 가격(Price), 대상지역(Region), 제작년도(Year), 제작자(Cartographer), 국가(Country), 발행처 및 출판사(Publisher), 소유 및 저작권(Holding), 상품 코드 표기(Product Code), 크기(Size), 색상(Color), 소장 상황(Collection), 출처(Source), 동해(East Sea), 독도와 울릉도(Dokdo & Ulungdo), 제주도(Jejudo), 간도(Kando)의 명칭, 한국의 국호 명칭(Name of Korea), 한국의 윤곽(형태)(Land type of Korea)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3).

본 연구에서는 서양고지도속에 수록된 한·중간의 국경선과 간도 지명의 유무 확인을 위해 지도를 분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티메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지도는 한국과 외국 관련 고지도는 총 1,177종이다.⁵⁾



그림 3. 티메카코리아 웹사이트(www.tmecca.co.kr)의 지도서비스

5) http://www.tmecca.co.kr/shop/goods/goods_grp_04.php

연구대상이 된 1,177종의 티메카웹사이트상의 지도를 대상지역별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 한·중(China & Korea)지도가 총 1,177점의 지도 중 322점인 27.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한·일지도(Korea& Japan)가 290점인 24.6%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도가 전체 중 총 612점으로 5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이 표현된 지도를 수집, 제공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웹사이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상의 지역별 지도 수

	대상지역(Region)별 분류	지도 수
1	Asia map	276
2	China & Korea	322
3	Europe & Asia	9
4	Far East	115
5	Japan Only	12
6	Japan & Korea	290
7	Korea Only	65
8	World map	88
	합계	1,177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상의 서양 고지도 중 총 498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을 분류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티메카코리아 웹사이트⁶⁾를 영역별로 스크랩하여 확인하고, 이 중 한·중간의 국경선과 간도 표기의 확인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지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872종

6) http://www.tmecca.co.kr/shop/goods/goods_grp_04.php

을 선정하고, 이 지도들 중 우리나라를 섬이 아닌 반도로 인식하며, 한·중간의 경계를 육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총 872점 중 498점의 지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서양 고지도 498종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항목과 분석을 위한 표현내용 항목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항목으로는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에서 각 지도마다 기재된 상세설명을 활용하였다.⁷⁾ 표현내용 항목은 한·중간의 경계 파악과 간도 표시의 유형 및 주요 북방 영토의 지명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한·중간의 경계를 유형화하였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북방 영토의 지명을 살펴보면서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상에 나타난 지도의 간도 부분을 확대 이용하였다.

7) 지도의 상세 설명에는 가격(Price), 대상지역(Region), 제작년도(Year), 제작자(Cartographer), 국가(Country), 발행처 및 출판사(Publisher), 소유 및 저작권(Holding), 상품코드 표기(Product Code), 크기(Size), 색상(Color), 소장상황(Collection), 출처(Source), 동해(East Sea), 독도와 울릉도(Dokdo & Ulungdo), 제주도(Jejudo), 간도(Kando)의 명칭 한국명(Name of Korea), 한국의 인식(Land type of Korea)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장 선행연구

간도라고 하면 넓게는 만주 지역 전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흔히 ‘연변’이라고 불리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리적으로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오늘날 간도문제는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간도문제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간도문제의 큰 틀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국제정치적 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주장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 측의 입장으로 크게 역사학계, 정치학계, 법률학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국내 학계의 연구

간도문제의 기본은 역사문제이자 영유권문제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자로 박선영⁸⁾과 이성환⁹⁾을 들 수 있다. 간도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주로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에 해당되는 곳의 영유권 문제이

8)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pp. 200~225.

9) 이성환, 2008,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동북아 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 시아문화학회. pp. 550~572.

고, 다른 하나는 한민족과 만주족 등에게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에 관한 영유권 문제이다. 해결책으로는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세 나라 이상이 모여 동시에 해결을 모색해야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평화적인 접근 또한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일본 등과 영토문제를 비롯한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즉, 동북아역사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양국 간, 또는 다자간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¹⁰⁾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간도뿐 만 아니라 독도, 녹둔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간도문제는 간도 조선족의 문제를 포함해 폭발력이 매우 강한 한중간의 잠재적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당위론적 배경을 들고 있다.

첫째, 간도협약이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제3자인 일본과 청나라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며, 둘째, 간도는 한반도의 연장지로서 조선인에 의해 개척, 개발되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 만주를 비롯한 간도는 고조선 이래 우리 조상의 활동무대였다는 점 등이다. 최근 신주백은 간도문제는 주변 열강의 다자적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전망해야 하며, 중국에 대해 간도 영유권 문제와 백두산 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매우 시사적인 문제를 제기 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간도 영유권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또 간도협약 무효론과 관련하여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중변계조약에 대한 평가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과 1964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국경조약이다. 이 조약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비밀조약으로서 조약체결 과정 및 배경 등에

10) 신주백, 2007, “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 문화연구, pp.63~64.

관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이 간도협약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획정한 가장 최근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간도 영유권 주장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중변계조약의 무효론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간도협약의 무효론을 주장하는 것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간도협약을 대체하는 의미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간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토문제와 동시에 사람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하는 곳이다. 즉 영유권 문제와 조선족의 지위문제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¹¹⁾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행정관할권에 포함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으려 최대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간도는 한국측에도 영토적 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영토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 한국은 조중변계조약이 북한이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한 것임을 문제시하여 영유권을 제기하는 일이 시급하며, 중국이 간도지역에 대해 행정 관할 구역에 포함시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역사적 권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간도의 사료를 발굴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관의 확보도 역시 시급하다.¹²⁾

현재 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국경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간도협약이

11) 이성환, 2008,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 563~564.

12) 최장근, 2008, “간도와 독도 영토문제의 비교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 200.

합법적이고 유효한 합의 인가에 따라 국경선의 유·무효가 결정된다. 만약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약은 제 3자에게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과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4조의 규정에 ‘조약은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 대하여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¹³⁾ 이는 간도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을사조약과 관련하여 간도협약 무효론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첫째, 실사 을사조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일본의 간도협약 체결은 보호국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둘째, 일본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의 지위에서 간도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보호국의 법적 권한의 범위에 관한 논의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법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있어야 하며, 그 위에서 보호국의 법적 권한의 범위를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가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음¹⁴⁾을 비판받고 있다.

13) 조병현, 이범관, 김홍택, 2005, “ 국제법상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고찰,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적학회, pp. 119~121.

14) 이성환, 2008, “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동북아 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pp. 563~564.

2. 중국 측의 입장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여러 학계의 주장과 반하여 중국은 간도협약에 대해 크게 2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간도문제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 영토로 귀속되어 있는 간도를 지켜나가는데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간도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적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이 동북프로젝트였다. 대대적인 백산시 개발로 연변조선족의 자연적인 해체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¹⁵⁾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 할 만한 역사적 사료로서 ‘요해총서(정집)’는 사실상 청대 전기나 후기의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간도문제에 관한 양국에서 가장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갖춘 연구서인 동시에 중국학계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작¹⁶⁾인 중조변계사(양자오취안·쑤위메이)는 상고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한중간의 변계문제를 총정리 함과 동시에 500쪽에 가까운 분량이 청대의 국경분쟁과 두 차례에 걸친 ‘국경조사’와 ‘간도문제’에 할애되어 그만큼 국경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 박선영, 2007, “역사(歷史)의 운명(運命) -간도협약(間島協約) 체결(締結)의 역사(歷史)와 현장-,”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p261, p272.

16) 유장근, 200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49),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역사재단, 中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 분석 -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연구를 중심으로-,” 김형중, p. 128.

3. 제3국의 입장

간도분쟁은 근대에 실질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선과 청만의 국지적인 영유권 분쟁 문제가 아니라, 20세기에는 러시아와 일본도 개입하였던 동아시아 제국의 문제가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영토의식으로 인해 조선과 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국가가 근대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변경지역인 동북지역의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조는 아편전쟁으로 대변되는 서구 열강국가의 중국 침략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변화, 개항에 따른 서구 자본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 계속되는 변경위기 등으로 인해 쇠약해졌다. 따라서 청조는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변경지대를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주권이 미치는 범주로 설정할 필요를 느꼈다.

조선 또한 18세기 이후 불안했던 청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인구증가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변경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간도는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기 때문이었다. 즉, 역사적·지리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도 간도지역이 조선과는 이질감이 없는 지정학적 생명선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렇듯 간도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제3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는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간도지역이 조청간의 국경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원래 소속불명의 중립지대라고 인식하였지만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시키기만 하면 간도는 자연히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계산이 있었다.¹⁷⁾ 특히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간도에 직접적인

17)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중국사학회, p. 201, 203, 214.

영향을 미친것은 21개조 요구의 결과 체결된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또는 ‘신조약’)을 둘러싼 양국사이의 대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 조약을 간도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간도에서의 조선인의 취급이 양국간에 문제가 되었다. 일본이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신조약을 간도에 적용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즉, 일본은 신조약을 이용해 간도를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¹⁸⁾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북방영토의 관련성은 1774년(영조 20년)에 속대전(續大典)을 간행하면서부터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참형을 처한다.’ 라는 국경 폐쇄, 즉 봉금정책을 엄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청과 조선사이에 무인지대를 설정하여 출입을 금했던 봉금정책이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인삼과 목재 그리고 사금 등을 채취하러 산둥반도 방면으로부터 유입되는 한족이 증가 하였으며 그 후 토지 개간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더욱이 청국은 아편을 무기로 밀려드는 서양 침략 세력과 러시아의 남하에 위협을 느꼈고 재정난까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이주민들이 계속 동북지역으로 유입하는 사태에 이르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추인하는 형태로 봉금지대를 개방하게 되었다.

청국은 1860년에 송화강 연안을 개방하고 1875년에는 봉금령을 해제하는 등 동북 만주지역을 무인지대로 설정해둔 정책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유민들은 만주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연해주로 혹은 직접 연해주 지역으로 월경하여 아예 이주해 들어갔다. 다만 슬라브계 민족이 19세기 중반에 유입되어 오면서 이 지역에 대해 정치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지배권을 적극 확보해 나가자 아시아계 민족들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극동진출 정책은 영토확장과 더불어 자민족 식민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내륙으

18) 이성환, 1999,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일본학지 제19집, 일본연구학회, p. 3.

로부터 까자크(kazak)¹⁹⁾나 농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점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62년경에는 자바이칼(Zabaikal)²⁰⁾지역으로부터 이주해 들어온 약 14,000명의 까자크와 가족들 그리고 2,500명 정도의 형벌을 받은 병사들이 국경지역에 약 1km간격으로 집중 배치되어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갔다.²¹⁾

간도에 관한 논저를 정리하면 위와 같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만 다각도에서 접근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서양고지도와 간도를 접목시킨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또한 간도문제 중에서도 많은 논저들이 간도협약과 백두산정계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간도에 대한 연구로 논문은 이선근(1962)²²⁾을 시작으로 류승주(1978)²³⁾는 간도 이주민에 대한 고찰을, 류봉영(1972)²⁴⁾과 박용옥(1985)²⁵⁾은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를 조명하였다. 이상태(1996)²⁶⁾는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관련해 보다 깊게 조망하였고 금주용(1996)²⁷⁾은 1910년대 북간도 한인의 법적지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장근(1997)²⁸⁾은 일제 강점기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이강원(2007)²⁹⁾은

19) 중세 모스크바 공국의 변방 지대에서 국가적 의무 노동을 피하고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따라 떠돌아다니던 하층신분의 대표자.

20)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호의 동쪽에 있는 산악지방. 트란스바이칼(Transbaikalia)이라고도 한다. 북쪽은 북바이칼 산지이고, 동쪽은 실카강(江)과 아르군강(江), 남쪽은 몽골[蒙古] 국경 부근까지를 가리키며, 바이칼호에서 헤이룽강(江)까지 뻗어 있다.

21) 동북역사재단, 2005, 동북역사논총, 북방사논문 12책 6호, 심현용, “근대 조·러 국경획정과 영토·이주민 문제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중심으로-.” pp. 302~303.

22)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회강되는 우리강역의 역사적 수난-, ” 역사학보 17·18, pp. 547~570.

23) 류승주, 1978, “조선후기 서간도 이주민에 대한 고찰-「강북일기」의 해체에 붙여-, ” 아세아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회.

24) 류봉영, 1972,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 백산학보 제13호, 백산학회.

25) 박용옥, 1985, “백두산 정계비건립의 재검토와 간도영유권, ” 백산학보 제30·31호, 백산학회.

26) 이상태, 1996, “백두산 정계비 설치에 관한 연구, ” 실학사상연구 7, pp. 87~119.

27) 금주용, 1996, “1910년대 북간도 한인의 법적지위 -토지소유권과 재판권을 중심으로-, ” 동국사학 제30집, 동국사학회.

28) 최장근, 1997, “한국통감부의 '간도침입'에 관한 논증 -통감부파출소의 설치경위-, ” 조선사연구 제6집, 조선사연구회.

29) 이강원, 2007b, “조선 초 기록 중 '두만' 및 '토문'의 개념과 국경인식, ” 문화역사지리 19(2), pp.

한·중간의 국경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다.

간도에 대한 저서로는 고승제(1973)³⁰⁾가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이민사 연구가 있으며, 노계현(1977)³¹⁾ 간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기석(1979)³²⁾이 간도영유권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박영석(1984)³³⁾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간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윤병석(1992)³⁴⁾과 유충걸·심혜숙(1993)³⁵⁾은 간도문제와 백두산을 연변조선족에 확대 연구하였다. 최장근(1998)³⁶⁾은 한·중 국경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양태진(1999·2007)³⁷⁾은 근세 한국의 경계속의 지역과 간도협약을 다루었다. 서양고지도와 관련된 주요 저서로는 건설교통부(2007)³⁸⁾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2007)³⁹⁾이 발행된 문헌과 서정철⁴⁰⁾, 오인동의 많은 저서⁴¹⁾와 논문⁴²⁾을 통해 서양고지도 속의 한국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도 한반도나 독도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뿐, 간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서양고지도를 통해 간도를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45~57.

이강원, 2010, “ 백두산 천지 지명에 대한 일고찰: 한·중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44(2), pp. 129~141.

30) 고승제, 1973, “ 한국 이민사 연구, ” 장문각.

31) 노계현, 1977, “ 간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 세립한국학론총 제 18호, 세립장학회.

32) 신기석, 1979, “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탐구당.

33) 박영석 1984, “ 일제하독립운동사연구; 만주·요령지역을 중심으로, ” 일조각.

박영석 1988, “ 재만한인독립운동사연구, ” 일조각.

34) 윤병석, 1992, “ 한인(조선족)의 간도개척과 민족운동, ” 한국민족독립운동사, 하석김창수교수 화갑.

35) 유충걸·심혜숙, 1993, “ 백두산과 연변조선족: 지리학적 연구, ” 백산출판사, 서울.

36) 최장근, 1998, “ 한·중국경문제연구 -일본의 영토정책사적 고찰-, ” 백산자료원.

37) 양태진, 1999, “ 근세한국경역론고, ” 경인문화사.

양태진, 2007. 08. “ 조약으로 본 우리땅 이야기, ” 예나루.

38)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3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40) 대원사, 1996,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정철.

동아일보사, 2010, 지도위의 전쟁, 서정철, 김인환.

41) 책과함께. 2008, 꼬레아,코리아 -서양이 부른 우리 국호의 역사-.

42) 오인동, 2004, 초기 서양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표기, (내일을 여는)역사 제 18호, pp. 302~338,

4. 기존 연구에 나타난 한·중 경계

오늘날 연구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국의 19세기 중·후반까지의 북방 경계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레지선(Regis선), 당빌선(d'Anville선), 본느선(Bonne선)이다. 레지와 당빌, 본느 모두 프랑스인이었다. 그 당시 프랑스만큼 중국 정보에 밝은 나라는 없었고,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가 전 유럽의 지도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세 유형의 서양고지도는 서간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고 지도에 따라 봉금지대는 있지만 모두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중국 역시 현재와 미래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간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봉금지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조·청 국경문제와 연관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⁴³⁾

1) 레지(Regis)선

레지선(Regis선)은 1735년 출판된 뒤 알드(p. du Halde)의 『중국통사』와 이 책에 수록된 지도를 체계적으로 편집해 만든 당빌의 『신중국지도첩』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전도”에 나타나는 국경선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김득황⁴⁴⁾이 처음으로 이름 붙였다. 이는 조·청의 경계를 선이 아닌 면으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18세기의 서양고지도에서는 레지선이 우리 북방영토의 표시에 있어 가장 축소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청 강희제의 명을 받아 1708년부터 1716년까지 변경 지도를 작성한 프랑스 선교사 레지

43)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연구, pp. 156~159.

44) 간도와 만주 연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재야 역사학자.

(Regis)의 실측도에 그려진 ‘레지선’이 바로 이 국경선이며, 이 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까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일부 만주 지방도 조선에 포함되어 있다. 만주 지역에는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해 땅을 개간하고 살았으며 지도에는 평안도를 뜻하는 영문 표기 ‘Ping Ngan’이 압록강 이북에 걸쳐 표기되어 있다. 청은 자신들의 성지인 만주로 조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금(封禁)⁴⁵⁾정책을 실시하였고 중립지역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조·청간의 국경선은 레지선에서 압록강-토문강으로, 다시 압록강-두만강으로 점점 밀려났다.

레지선을 조·청간 영토 경계로 수용한 경우는 비단 서양의 지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본이 1876년에 제작한 “조선팔도지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지도는 서양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일본에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레지선을 조·청간의 국경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 지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45) 1677년 청나라정부는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이북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라는 명목으로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또한 자신의 발상지를 보호하고자 봉금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조변(柳條邊 : 버드나무 방책)이라는 변장을 만들었다. 이는 청조의 발상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변외 토지와 산림자원 등 각종 동북경제의 특권적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봉금하여 경계를 지은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 몽고와 조선의 군사방어선 서로 다른 방식에 종사하는 동북 각 민족의 지리적인 경계선, 청조가 동북지역에 부분적으로 나눈 행정구역의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청조의 각종 봉금지역을 보호하는 천연적인 경계표지의 역할을 했다.

유조변은 근본적으로 만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내외를 구분을 역할을 하였지만 북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선의 역할도 하였다. 유조변에서 조선까지의 공광지대는 청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치했던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조변의 확대와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의 확대되어 감으로써 점차 압록강 두만강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2) 당빌(d'Anville)선

당빌(d'Anville)선은 봉황성과 압록강 사이에 그은 레지선보다 더 많은 영역을 조선 땅으로 표기하였다. 이 지역은 실제로 조선과 청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 지역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한 봉금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많은 서양 고지도는 레지선보다 당빌선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당빌은 『신중국지도첩』의 서문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거의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빌은 서문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지도가 그들에 의하여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략) 조선지도는 그 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조선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고, 그 원본이 궁중에 보관되어 있다. 조선에 관한 지도책이 만들어 진 것은 바로 그 원본에 의거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 왕국의 국경을 조사한 후 그들 자신이 관찰하고 진술한 지도에 나타난 경계선간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⁶⁾ 이는 18세기에서 19세기 중엽까지 ‘뒤 알드’의 저서에 나오는 “조선전도”를 비롯한 당빌의 중국, 아시아 관련 지도는 조·청의 국경선의 표시는 물론 서양고지도 제작 전통에 있어 하나의 표준이 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진다.⁴⁷⁾

뒤 알드의 『중국통사』에 “조선전도”와 함께 수록된 당빌이 제작한 “타타르지도”(1735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북아시아까지의 넓은 범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한국의 평안도(Pingan)는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넓게 표시되어 있고, 함경도(Hienking)역시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조·청의 국경선이 레지선보다 서쪽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동가강과 봉황성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상에 점

46) 김득황, 2003, “잊혀진 고토, 만주의 역,” 삶과 꿈, pp. 203~206.

47)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연구, p. 160.

선으로 그린 국경선이 아니라 봉황성과 목책을 중심으로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 당빌의 “타타르지도”는 포함되지 않는 봉금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봉금지역을 포함한 중국 국경에 대한 서양인들의 해석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듯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만 지도를 제작하는 당빌의 지도에서 무인지대인 봉금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고 국경을 표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지리학 분야의 연구가 절실하다.

북방영토의 경계와 관련해 18세기에 제작된 서양고지도들 가운데는 레지선보다 확장된 봉금지역을 포함한 당빌선으로 표기된 것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조·청간의 경계선은 서양고지도에서 비교적 일반화되어 18세기와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고지도 제작에 적용되었다. 레지선이 많이 나타나는 지도들은 주로 한국만 따로 독립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지도인데 반해, 당빌선은 주로 아시아나 중국을 주제로 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그린 지도에 많이 나타났다. 당빌선이 나타나는 서양고지도의 목록은 아래와 같은데 약 150년 동안이나 유럽 각국의 많은 지도제작자들이 이 국경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당빌선으로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의 목록

지도제작자	지도제목	제작 년도
d'Anville	Cartre General de la Tartarie Chinoise	1732
Mathiae Hasii	Imrerii Russici Tartariae Universqe	1739
R.W.Seale	Asia, Pl V. part of China, Tibet and Tartarie	1740
Homann	Tartariae Sinensis Mappa Geographica?	1749
Homann	Cartre General de la Tartarie Chinoise	1749
Homann	Et des Roaumes de Coree et de Japan	1749
Homann	Asia	1750
Vaugondy	L'Empire de la Chine Dresse d'Apres les Cartes de l'Atlas Chinois	1751
Vaugondy	L'Empire de la chine	1751
d'Anville	Seconde Partie de la Carte de l'Asie Contenant la Chine	1752
Gibson	A New & Accurate Map of the Empire of China	1759
Philippe	Carte Nouvelle d'Asie	1768
G. de l'isle	Carte d'Asie	1772
G. de l'isle	Carte d'Asie	1772
Vaugondy	Siberie ou Russie Asiatique, Tartarie Chinoise	1778
T. Kitchin	A New Map of China	1782
Schraembl, F. A.	Zweiter Theil der Karte von Asien	1790
M. Brion	Carte du japon et de la Coree	1790
The Jesuits	The Empire of China, with its Principal Divisions	1794
D'anville	Asia and its Island	1794
Herisson	Cartre General d'Asie	1795
J. Wilkes	China	1800
J. Russell	Asia	1801
John Cary	A New Map of China, from the Latest Authorite	1806
Guthrie	Dominions of Russia	1808
Delamarche	Siberie Partie de l'Empire Chinoise	1811
Tranquilo mollo	Chinesisches Reich	1816
M. Lapie	Asie	1816
Brue	Cartre de l'Asie	1820
Brue	Cartre general de l'Empire Chinoise et du Japan	1824
Vandermalen	Asie / Coree	1825
Herisson	De l'Asie	1830
M. Lapie	l'Asie	1832
Goujan	Cartre de l'Empire Chinois	1834
Stulpnagel	Asia	1868
Stulpnagel	Asia	1877
C. Perron	L'Empire Chinoise et l'Empire Japonais	1882
L. Wuher	Asie	1882
A. H. Dufour	Mapa de Aisa	1884

3) 본느(Bonne)선

프랑스에서 본느(Bonne)가 제작한 아시아지도는 당빌 지도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 본느(Bonne)선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당빌선에 나타난 국경선보다 더 넓은 지역을 우리의 북방영토로 그리는 지도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서간도와 북간도를 아울러 우리의 영토를 가장 넓게 표시했다. 레지션과 당빌선은 19세기 중반 이후까지도 꾸준히 사용 되었지만 본느선을 사용한 영토경계선은 19세기 중반 이후 점점 지도상에서 사라져 갔다. 하지만 이 세 유형의 지도가 모두 간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느(Bonne)가 1787년 제작한 중국·한국·일본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그림 32)의 경우에는 지도의 특성상 일반적인 본느선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축소된 경계를 가진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계가 압록강·두만강경계 보다 서쪽(압록강 지류)으로 보다 더 넓은 영토 즉, 서간도를 포함한 영토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본느선으로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의 목록

지도제작자	지도제목	제작 년도
D'anville	Carte la plus Generale et qui comprend la Chine, la Tartarie Chinoise, et le Tibet	1734
Bellin	la Chine avec la Koree(Kaoli Koue)	1749
Bellin	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Plus Voisines	1750
Leipzig	China Nebst Corea	1755
Bonne	Cartre de l'Empire de la Chine	1770
Bonne	타타르, 중국지도	1771
Bonne	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1771
Bonne	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1771
Santini, Paolo	L'Empire de la Chine, avec la Tartarie (China & Tartary)	1779
Bonne	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1780
Brion de la tour, Louis	Carte de la Chine(Coree)	1780
Antonio Zatta	La Tartaria Chinese	1784
Bonne	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1787

제3장 서양고지도상의 한·중 경계 유형

1. 티메카웹사이트상의 지도 분석 개괄

서양고지도에서 북방영토 및 간도지역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서양고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 1705년 드릴(G. de l'Isle)이 제작한 “인도와 중국 지도”는 서양에서 조선을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인 왕국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북쪽지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간도영역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지만 요동지방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드릴의 1705년 “인도와 중국지도”이후 1708년 네덜란드에서는 드릴의 지도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피에르 쉥크(Pierre Schenk)의 “아시아지도”가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형태는 드릴의 지도보다 좀 더 긴 사각형 형태로 그려져, 남해안의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이 지도는 드릴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요동 지역을 우리의 북방영토에 포함해 그리고 있다. 레지가 중국을 측량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했던 1720년 보다 10여년 이상 빨리 제작된 지도로, 그 당시 서양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의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735년은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가 처음으로 당빌에 의해 제작된 해이다.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당빌의 “중국지도”와 “조선전도” 그리고 이를 참고해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제작된 서양고지도들의 경우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까지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⁴⁸⁾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의 지도들의 분석한 결과 서양고지도들 중 우리나라를 섬이 아닌 반

48)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pp. 156~159.

도로 인식하며, 이미지가 불명확한 지도(13점)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 498종을 분석한 결과 한·중간의 국경선은 크게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와 간도포함 경계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 중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경계는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로 총 498종 중 226점을 차지하였으며, 간도포함경계는 총 182점으로 압록강·두만강부근경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이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외에 봉금지역이 표시된 지도는 총 35점, 국경선 표시가 없는 지도는 총 45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와 간도포함 경계가 나타난 지도들의 제작연도, 제작국가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을 세분화 할 예정이다.

먼저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란 필자가 오늘날의 압록강·두만강 국경선과는 차이를 두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로, 압록강·두만강 국경선 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압록강·두만강 경계를 말한다. 현재 국경선보다 압록강·두만강지류를 포함하는 즉, 북쪽으로 조금 더 확장된 압록강·두만강경계를 가진 지도를 말하며. 이는 서양고지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한·중 경계 유형 중 하나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림 4. 간도지역위치

출처: 간도회복추진위원회(<http://cafe.naver.com/coreagando>)

독일의 니콜라스(Nicolaus)가 제작한 관동, 요동 및 한국(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1750, 그림 5)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압록강·두만강 경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현재 국경선보다 압록강·두만강지류를 포함하는 즉, 북쪽으로 조금 더 확장된 압록강·두만강경계를 가진다. 이는 지도에 따라⁴⁹⁾ 조·청사이의 완충지대(봉금지대)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봉금지대를 모두 포함해서 조선 주권하의 영토(Ping-Ngan, 平安)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계 또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서양고지도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계는 19세기에 갈수록 보다 오늘날의 한·중 경계의 모습과 가까운 경계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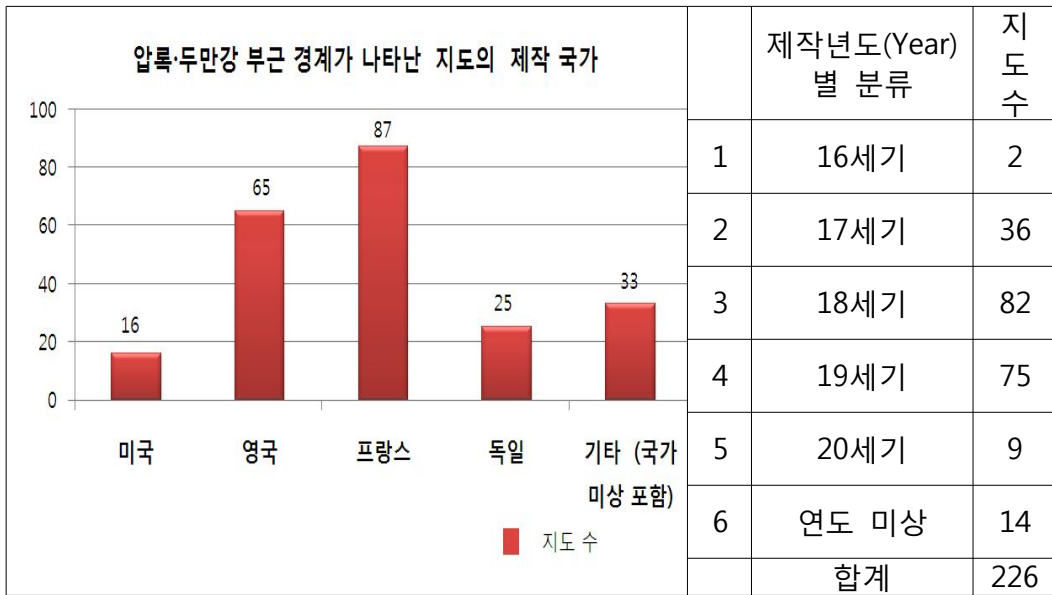
그림 5. 관동, 요동 및 한국지도(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부분

1750년, 독일, Nicolaus

49) 1737년, 「조선국도」, 당빌.

<표 4>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 지도의 제작 국가·시기별 현황



이 지도들을 먼저 국가별로 분류한 결과 압록강·두만강 부근을 경계로 그린 226점의 지도는 프랑스·영국·미국·독일에서 주로 발행되었다. 프랑스가 총 87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영국도 총 65점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 다음은 독일, 미국 순이었다. 기타에는 총 33점의 지도가 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지도가 11점,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지도가 총 7점이 포함되며, 발행국 미상인 지도는 총 15점이다(표 4-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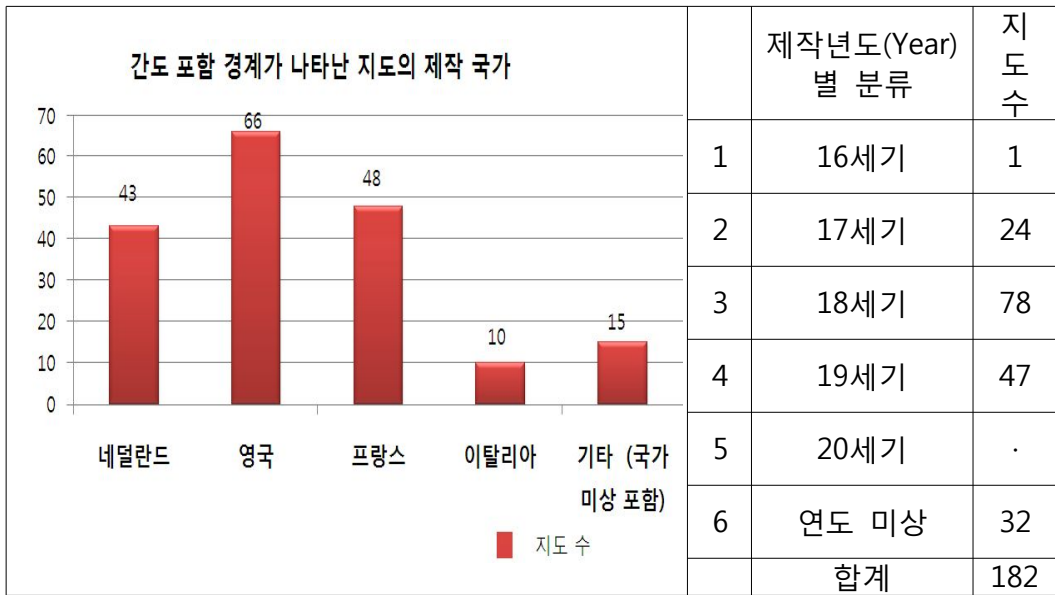
압록강·두만강 부근을 경계를 가진 지도들의 발행 연도(Year)를 분석한 결과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 연도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비교적 근대에 제작된 지도가 많았다. 이들 중 18~19세기에 제작된 지도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7세기에 제작된 지도로 전체 지도의 15%를 차지했다. 또한 16세기에 제작된 지도들은 한국을 섬으로 인식하거나, 한국 자체가 표현되지 못한 지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로 표현된 국가 미상의 지도가 2점 확인되었다(표 4-우).

분석한 498점의 서양고지도중 대부분의 지도들은 압록강-두만강을 기준으로 국경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상당수의 지도들이 간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이하 간도 포함 경계)로 보았다. 간도를 옛 조선 영토로 표기한 서양고지도 중 대표적으로 1740년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임마뉴엘 보웬(Emanuel Bowen)이 제작한 아시아지도(Modern Map and Chart; Asian Map, 그림 6)는 서쪽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동쪽 우리나라, 일본까지 당시 아시아 각국이 전부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조선의 영토가 북쪽으로 간도, 만주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6. 아시아지도(Modern Map and Chart; Asian Map), 부분
1740년, 영국, Emanuel Bowen

<표 5> 간도 포함 경계 지도의 제작 국가·시기별 현황



간도 포함 경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82점의 지도가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주로 발행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국가는 영국으로 총 66점으로 3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26.3%, 네덜란드가 23.2%가 근소한 차이를 가지며 각각 48점, 43점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총 10점으로 5%를 나타냈다. 기타에는 총 15점의 지도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제작된 지도가 3점, 벨기에에서 제작된 지도가 총 8점이 포함되며, 발행국 미상인 지도는 총 4점으로 나타났다(표 5-좌).

다음으로 간도를 포함한 경계를 가진 지도들의 발행 연도(Year)를 분석한 결과 압록강·두만강 부근을 포함한 경계를 가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제작되었다. 18~19세기에 제작된 지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8세기의 지도는 182점의 지도 중 총 78점으로 42.8%를 차지하였다.

19세기의 지도는 총 47점으로 25.8%, 17세기에 제작된 지도는 전체 지도의 13%를 차지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도 포함 경계는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와는 달리 20세기로 갈수록 점차 그 수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제국주의에 힘입어 지도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19세기 후반 지도 제작이 산업·과학화되면서 정밀하고, 보다 정확한 지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표 5-우).

오늘날 연구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는 제2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대표적인 유형이 레지선(Regis선), 당빌선(d'Anville선), 본느선(Bonne선)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경 분류 방식으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할 시 간도의 의의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임을 취사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 가지 분류 외에 자체적으로 추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접근을 수행하는 동시에 간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상의 서양고지도 총 498점(1392-1910년)을 바탕으로 이들을 다시 분류한 결과 한·중간의 경계를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 레지(Regis)선 경계 유형,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 타듀(Tardieu)선 경계 유형, 보웬(Bowen) 경계 유형, 본느(Bonne)선 경계 유형,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 봉금지역 표시 경계 유형,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으로 총 아홉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각각의 특징은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의 경우 아홉 유형 중 가장 작은 영역을 북부지방의 형태로 보았으며, 오늘날의 한·중 경계와 일치하는 경계를 가진다.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은 이보다 압록강·두만강에서 강의 지류를 따라 약간 북쪽으로 확장된 경계를 가진다.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의 경우 레지(Regis)선 경계보다 특히 압록강지류의 위쪽으로 경계가 더욱 볼록하게 확장된 유형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비대칭적인 한반도 경계와 달리, 압록강 경계와 두만강경계가 상대적으로 대칭 구도를 이루는 형태의 지도이며, 서간도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유형이다.

타뉘(Tardieu)선 경계 유형은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에서 더욱 서쪽으로 길쭉하게 확장된 지도의 유형으로 동간도와 요동 반도를 일부 포함한다. 보웬(Bowen) 경계 유형은 대표적인 영국의 엠마뉴엘 보웬(Eman Bowen)의 지도로 경계가 단순하나 북쪽으로 확장된 지도들로, 서간도·북간도·동간도를 모두 포함하는 유형의 지도이다. 본느(Bonne)선 경계 유형은 당빌(d'Anville)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동간도·서간도·북간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보웬(Bowen)경계에서 요동 반도(서)쪽으로 더욱 확대된 형태의 지도로 아홉 유형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경계이다.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은 서간도·동간도 지역을 일부 포함하며 북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를 아우르는 북동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의 지도이다. 한·중 경계의 아홉 유형 가장 긴 형태로 볼 수 있다. 봉금지역 표시 경계 유형은 지도에 따라 봉금지역(중립지역)을 표시한 경계 유형이다.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은 한·중간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은 지도의 유형이다.

앞서 티메카웹사이트상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를 크게 두 가지(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와 간도포함 경계)로 나누고 각각의 지도의 수와 연도, 발행국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세분화시켜 아홉 유형의 지도로 나누어 재분석한 결과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 226점 중에서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을 가진 지도의 수는 총 53점(23%),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의 지도 수는 59점(26%),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은 72점(32%)을 차지하였다.

또한 타뉘(Tardieu)선 경계 유형은 42점(19%), ‘간도포함 경계’ 182점 중에서 보웬(Bowen) 경계 유형은 47점(26%), 본느(Bonne)선 경계 유형은 73점(40%),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은 62점(34%)를 차지하였다. 봉금

지역 표시 경계 유형의 경우 전체 498점의 지도 중 35점(7%),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은 45점(9%)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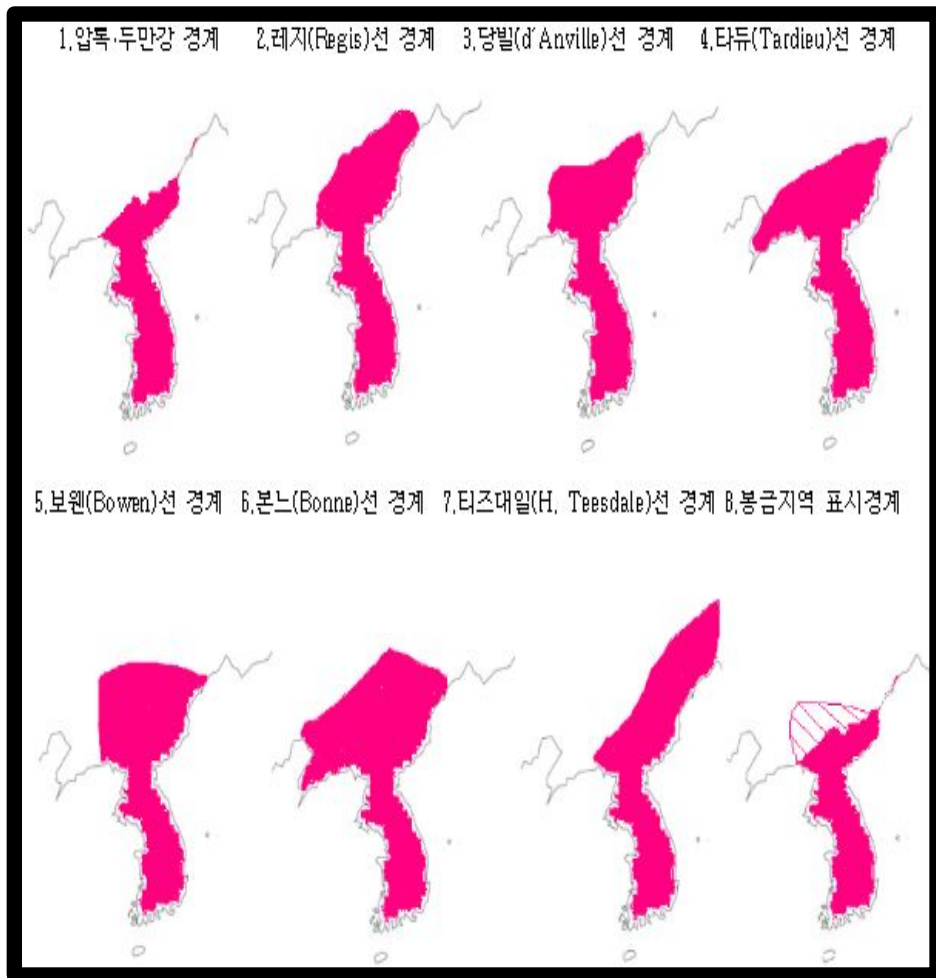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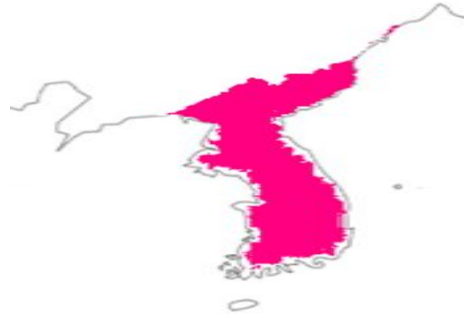


그림 7.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 유형 분류⁵⁰⁾

50) 아홉 번째 유형인 '9.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은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2.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

오늘날의 한·중 경계와 일치하는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대부분 제작되었지만 20세기에 갈수록 압록강·두만강 경계를 가진 지도의 수가 점차 급증한다. 하지만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선 중 오늘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유형은 아홉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간도협약(間島協約, 1909년)⁵¹⁾을 영향을 받아 일제 식민지시대를 계기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중에서도 1920년대에 제작된 지도가 가장 많다.

제작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순으로 많았으나 이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을 가진 지도들의 특징은 한국을 주제로 한 대축척지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표적 지도로는 프랑스의 주베(H. Zuber)가 제작한 한국지도 (Carte de Corée, 그림 9, 1870년)는 1870년 6월 『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Paris)』 제5 Series, 제19권에 발표했으며 지도의 범위는 북위 33도에서 42도까지와 프랑스 파리(Paris)기점 동경 122도에서 128도까지 나타난 한국지도이다.

또한 영국의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가 제작한 한국지도 (Map of Cho-Sen or Korea, 1882, 그림 10)와 필립(Philip, George & Son)

51)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 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연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 이었다.

이 제작한 중국지도(China, 1910, 그림 8를) 보면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 경계가 한국만을 주제로 한 지도(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을 주제로 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그린 동아시아지도(후자)까지 지도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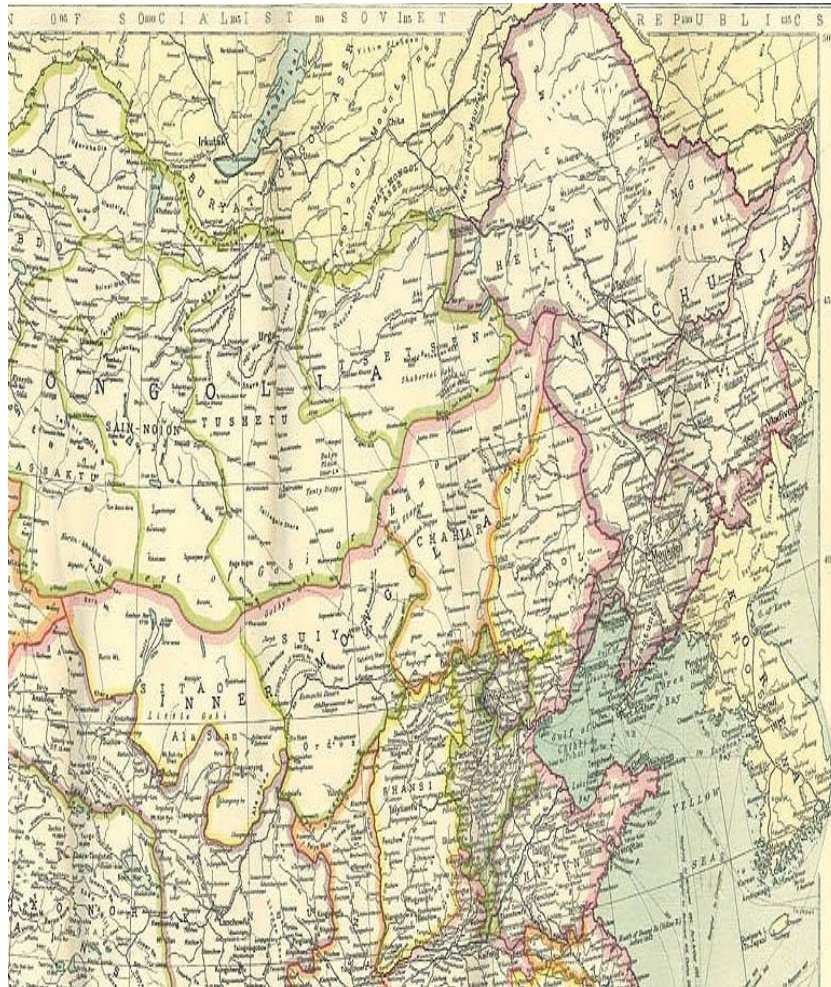


그림 8. 중국지도(China), 부분
1910년, 영국, Philip, George & Son



그림 10. 한국지도(Map of Cho-Sen or Korea), 전체
1882년, 영국, William Elliot Griffis



3. 레지(Regis)선 경계 유형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은 당빌(d'Anville) 유형 중에서도 가장 작은 영역을 북부지방의 형태로 보았지만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한·중간의 경계선 중 압록강·두만강의 지류를 따라 북쪽으로 약간 확장된 지도 유형으로 전자인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 보다 더 많은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작국은 프랑스·영국·미국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18·19세기에 제작된 지도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도로는 프랑스의 벨랭이 제작한(Bellin & Jacques-Nicolas) 카타이지도(Carte du Katay ou Empire De Kin, 1764, 그림 11)가 있다. 이는 레지선의 유형을 잘 보여 주는 지도로 이 지도의 상단에는 지도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데 금나라 칭기스칸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도 각각 'Yalo', 'Tumen'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레지(Regis)선으로 국경선을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국의 키친(T. Kitchin)의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 1782, 그림 13)는 당빌의 지도를 참고했으나 보다 많은 고유명사 지명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국의 존(Thomson. John)이 제작한 타르타르지도(Tartary, 그림 12)와 미국의 루카스(Lucas)가 제작한 타르타르지도(Tartary, 1816, 그림 14)에서도 전형적인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전자가 후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지도로 한·중간의 경계가 레지(Regis)선 경계 유형 중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직선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루카스(Lucas)의 타르타르지도는 한반도 내에서

의 지명이 거의 기재되지 않은 대신 국경선만이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어 한·중간의 경계를 파악하기 쉽다.



그림 11. 카타이지도(Carte du Katay ou Empire de Kin)속의 우리나라, 부분
1764년, 프랑스, Bellin



그림 12. 타르타르지도(Tartary)속의 우리나라, 부분
영국, Thomson.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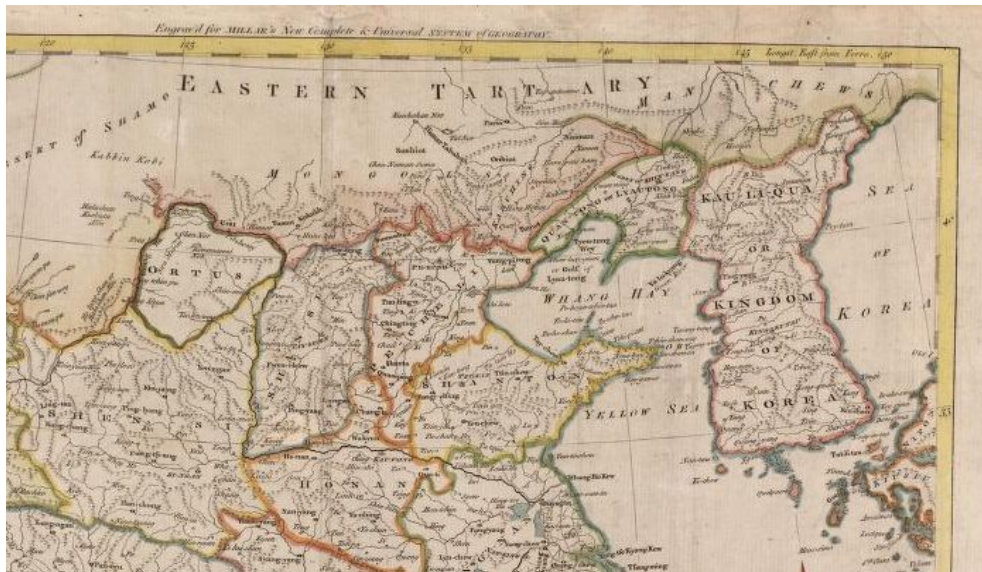


그림 13.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속의 우리나라, 부분
1782년, 영국, T. Kitchin



그림 14. 타르타르지도(Tartary)속의 우리나라, 부분
1816년, 미국, Lucas



4.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

당빌(d'Anville)선 경계는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에서 압록강 쪽으로 경계가 더욱 볼록하게 확장된 유형이다. 즉, 전체적인 한반도 형태로 보면 북서쪽으로 확장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압록강·두만강경계보다 비교적 대칭 구도를 이루는 형태로 보이며, 서간도 지역을 일부포함하는 유형이다.

이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서양고지도에 적용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1735,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초반부터도 서간도와 북간도를 아울러 우리 영토로 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외에 당빌의 “중국지도(1732)”와 함께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제작된 많은 서양고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부분의 서양고지도들이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까지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750년에 호만(Homann Heirs)이 제작한 아시아지도(Asia, 그림 16), 1751년 프랑스의 보공디(Didier Robert de Vaugondy)가 제작한 중국제국지도(L'Empire de la Chine Dresse d'après les Cartes de l'Atlas Chinois, 그림 17), 1794년 스페인의 예수회(the Jesuits)에서 제작된 중국제국지도(The Empire of China, with its Principal Divisions, 그림 18) 등이 당빌선 경계의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 From the Latest Authorites, 그림 19)를 제작한 존 캐리(John Cary)는 영

국의 훌륭한 지도 제작자로 그는 도로지도, 지구의, 해도, 천문도, 지질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지도 첩을 발간했다. 이 지도에서는 한국의 형태를 당빌의 지도를 이용하여 약간 변형했고, 국명은 표기하지 않았지만 동해는 한국해, 즉 Sea Of Korea로 표기했다.⁵²⁾



그림 15.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부분
1735년, 프랑스, d'Anville

52) 동아일보사, 2010, 서정철, 김인환, 지도위의 전쟁



그림 16. 아시아지도(Asia), 부분
1750년, Homann He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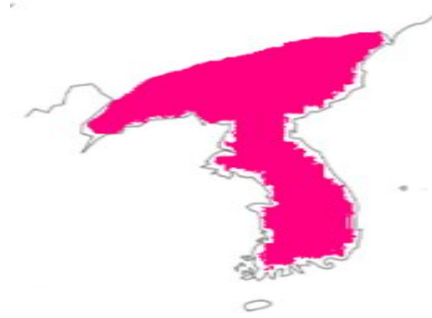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제국지도(L'Empire de la Chine Dresse d'après les Cartes de
l'Atlas Chinois), 부분
1751년, 프랑스, Didier Robert de Vaugondy



그림 18. 중국제국지도(The Empire of China, with its Principal Divisions),
부분
1794년, 영국, the Jesuits



그림 19. 신중국지도(A New Map of China, from the Latest Authorities),
부분
1806년, 영국, John Cary



5. 타뉘(Tardieu)선 경계 유형

타뉘(Tardieu)선 경계 유형은 당빌(d'Anville)선 경계 위에 동간도와 요동반도(서)쪽으로 더욱 확장된 경계를 가지며 프랑스의 지도제작자인 타뉘의 지도에 나타나는 한·중경계를 의미한다. 즉, 서간도와 일부의 요동반도를 포함하여 서쪽으로 길쭉하게 확장된 유형의 지도이다. 이러한 경계의 유형을 가지는 지도는 독일·프랑스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당빌(d'Anville)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18세기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755년 독일의 라이프치히 출판사(Leipzig Merkur)에서 제작된 제작자 미상의 동아시아지도(China Nebst Corea, 그림 20)를 보면 지도의 특성상 지도 위쪽의 한·중 경계가 끊어지는 형태이지만 당빌(d'Anville)선 경계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이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1784년 프랑스의 타뉘(Pierre Francois Tardieu)의 중국지도(Carte de l'Empire de la Chine, 그림 21)는 이 유형의 전형을 보여주며 전자의 지도보다 오히려 한·중간의 경계가 온전하고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한·중간의 국경의 네 번째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본느(Bonne)가 제작한 지도와는 예외적으로 1780년에 제작한 중국제국·조선왕국·일본열도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edu Japon, 그림 22)의 경우 타뉘(Tardieu)선 경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지도(China Nebst Corea, 그림 20)와 같이 지도의 특성상 우측상단에 한·중간의 경계가 위치함에 따라 그 경계가 지도상에

끝까지 표현되지 않았다. 이에 북쪽으로 더욱 확장된 기존의 본느선과는 달리 타뉘선 경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0. 동아시아지도(China nebst Corea),부분
1755년, 독일, Leipzig



그림 21. 중국지도(Carte de l'Empire de la Chine.), 부분
1784년, 프랑스, Pierre Francois Tardieu



그림 22. 중국제국·조선왕국·일본열도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부분
1780, 프랑스, Bonne



6. 보웬(Bowen)선 경계 유형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엠마뉴엘 보웬(Emanuel Bowen)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비교적 단순히 표현된 경계를 특징으로 가지며, 그 경계가 북쪽으로 확장된 지도이다. 이 유형은 서간도·북간도·동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유형의 지도 중의 하나로, 아홉 유형 중 한·중의 경계가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경계 유형을 따랐으며, 이 역시 18세기에 제작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보웬(Emanuel Bowen)이 1740년 제작한 아시아지도(Modern Map and Chart; Asian Map, 그림 23)뿐 아니라 1777년에 제작한 아시아지도(A New and Accurate Map of Asia, 그림 25)에도 이러한 경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전자의 지도는 서쪽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동쪽 우리나라, 일본까지 당시 아시아 각국이 다 나와 있으며, 당시 조선의 영토가 북쪽으로 간도,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조선과 중국 사이 국경은 서쪽에서 중국 선양(瀋陽)을 기점으로 시작해 동쪽의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연결되어,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 기준인 압록강과 두만강 위치 보다 훨씬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한국해'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718년 중국 청나라가 제작해 유럽으로 전해진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이 당시 간도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된다. 그 밖에 1744년 프랑스 호만(Homann)의 아시아지도



그림 24. 아시아지도(Scale Mensurarum Reductarum Mediarum)속의
우리나라, 부분
1744년, 프랑스, Homann



그림 25. 아시아지도(A New and Accurate Map of Asia) 속의 우리나라,
부분
1777, 영국, Emanuel Bowen



그림 26. 아시아지도(An Accurate Map of Asia)속의 우리나라, 부분
1780년, 영국, J. Cary



그림 27. 동아시아지도(China and the Birman Empire with parts of
Cochin-China and Siam)속의 우리나라, 부분
1834년, 영국



7. 본느(Bonne)선 경계 유형

우리의 북방영토를 가장 넓게 표현했던 본느(Bonne)선은 일반적으로 서간도와 북간도를 아울러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도 압록강·두만강 지류를 지나 송화 강 중류인 만주 지방까지(오늘날의 지린(吉林)⁵³⁾까지 길게 뻗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느선의 유형을 가진 지도는 프랑스가 가장 많으며, 그의 영향을 받아 이탈리아·영국·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제작시기는 18세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표적인 지도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1734년에 프랑스의 당빌이 제작한 동아시아지도(Carte la plus Generale et qui Comprend la Chine, la Tartarie Chinoise, et le Tibet, 그림 28)가 대표적이다. 이후 많은 지도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1750년 프랑스의 벨랭(Bellin)의 동아시아지도(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Plus Voisines, 그림 29)의 경우 지도 우측 상단 한·중간의 경계가 완전하지 않지만 본느선 경계를 따르고 있다. 이는 한·중간의 경계가 지도 상단부까지 이어져 그 위의 내용은 지도에서 알 수 없는 형태로 지도상에는 생략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는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하여 북동쪽으로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1771년 프랑스의 본느의 중국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그림 30)까지 그 전통을 이어 받았으며 1784년 이탈리아의 안토니오(Antonio Zatta)

53)吉林(길림), 지린성[吉林省] 동부, 송화강[松花江] 중류에 위치한다. 창춘[長春]과의 거리는 104km이다. 원래는 지린우라(吉林烏拉:몽골어로는 강변이란 뜻)라고 불렀다.

가 제작한 중국지도(La Tartaria Chinesse, 그림 31)와 본느가 제작한 중국·한국·일본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그림 32)를 비롯한 18세기에 제작된 많은 지도들이 본느선을 국경선으로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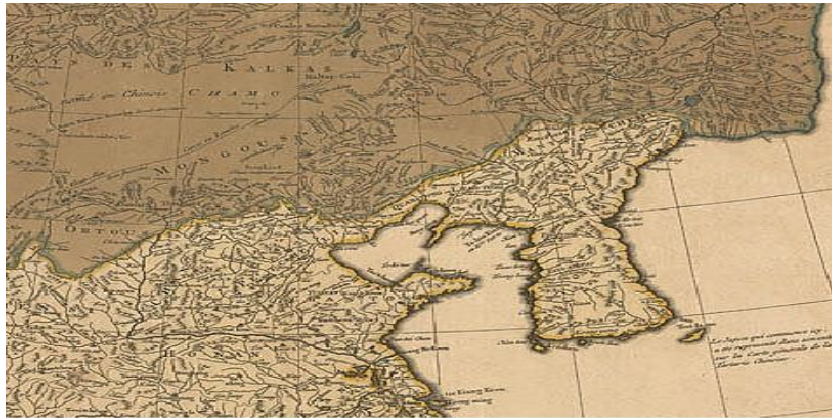


그림 28. 동아시아지도(Carte la plus Generale et qui Comprend la Chine, la Tartarie Chinoise, et le Tibet), 부분
1734년, 프랑스, d'Anville



그림 29. 동아시아지도(La Chine avec la Koree et les Parties de la Tartarie les Plus Voisines), 부분
1750년, 프랑스, Bellin



그림 30. 중국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부분
1771년, 프랑스, Bonne



그림 31. 중국지도(La Tartaria Chinese), 부분
1784년, 이탈리아, Antonio Zatta



그림 32. 중국·한국·일본지도(Empire de la Chine, Royaume, de Corée et Isles du Japon), 부분
1787년, 프랑스, Bonne



8.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은 서간도·동간도 지역을 일부 포함하며 북간도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형태의 지도로 다른 유형보다 한·중간의 경계가 동쪽으로 길게 연장된 형태의 지도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비교적 19세기에 영국, 미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지도는 20세기에 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아홉 유형 중 우리나라의 영역을 가장 길게 본 유형이다.

대표적으로는 1834년 영국의 헨리 티즈데일(H. Teesdale)⁵⁴에 의해 제작된 아시아지도(Asia, 그림 33)와 1920년에 로마교황청이 작성한 교구도가 있다. 전자는 한·중간의 경계가 연해주지역으로 곡선을 그리듯 길게 뻗어있다. 후자의 경우 티즈데일의 영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도 북간도와 연해주를 일부 포함하는 간도 지역이 원산교구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그림 34). 이러한 분류는 이 당시 간도 거주인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으며, 영토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또한 1835년 영국의 도워(Dower & John Crane)가 제작한 동아시아지도(China and Japan, 그림 35)와 1840년 영국의 SDUK⁵⁵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Asia, 그림 36)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욱 길쭉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간의 경계

54) 헨리 티즈데일은 19세기 인쇄관련 기업들이 밀집된 런던의 홀본(High Holbon)에 위치한 회사이며, 동반구와 서반구 지도를 제작한 사람이다. 이 지도는 J. Dower가 동판 작업을 하였다. 한반도 우측에는 'Gulf of Corea'라고 표기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St.of Corea'라고 나타났다.

55)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1826년 설립)

가 연해주과 요동반도 방향, 양쪽으로 확장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의 지도를 바탕으로 후자의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로마 교구도 선 경계 유형 중에서도 한국의 북방영토가 좌·우로 길게 뻗은 독특한 형태의 지도이다.



그림 33. 아시아지도(Asia)속의 우리나라, 부분
1834년, H. Teesd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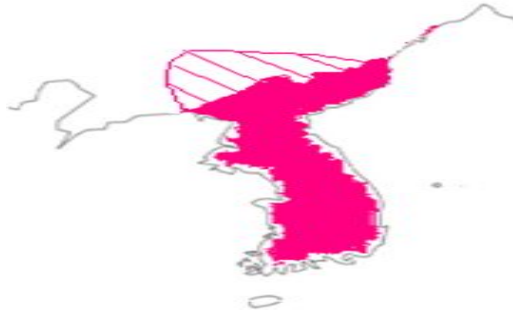
그림 34. 우리나라가 속한 교구도, 부분
1920년, 로마교황청



그림 35. 동아시아지도(China and Japan)속의 우리나라, 부분
1835년, 영국, Dower & John Crane



그림 36. 아시아지도(Asia)속의 우리나라, 부분
1840년, 영국, SDUK



9. 봉금지역 표시 경계

티메카웹사이트상의 지도 총 498점 중 봉금지역이 표시된 지도는 총 35점이다. 제작시기는 18세기의 지도가 대부분으로, 제작국 중 프랑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봉금지역이 표시된 18세기 이후의 지도들은 전자의 지도를 바탕으로 네덜란드·독일·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작되었다. ‘중립지대’는 독일 주스투스 페르테스(Justus Perthes)가 발간한 “중국지도”에서 당빌선과 레지선 사이에 형성된 봉황성을 중심으로 한 목책(고구려 장성)을 따라 형성되는 영역을 표기함으로써 레지선을 조·청의 영토경계선을 보았다.

또한 1880-1882년사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자콥 쿠퍼(Jacob Kuyper)가 출판한 『세계지도첩(Wereld atlas voor & huiskamer)』의 “중국과 한국지도”에서도 페르테스의 지도와 같은 영역에 ‘중립지역’이라고 표기했다. 이러한 ‘중립지역’의 표기는 뒤 알드의 『중국통사』에서 조·청의 국경에 관하여 이미 언급한 ‘무인지대’ 설정에 대한 재확인 작업 이상은 아니었고, 당빌선이 아니라 레지선이 두 나라의 국경선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확인 작업은 19세기 말 레지선이 영토경계선으로 서양고지도에 정착하게 만들었고, 당빌선과 본느선의 사용을 현저하게 줄여 드는 결과를 가져왔다.⁵⁶⁾

국경의 표시에 봉금지역(중립지대)이 포함된 대표적 지도를 살펴보면 보공디(Didier Robert de Vaugondy)가 1751년에 제작한 “중국지도(L’Empire de la Chine (그림 37))”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표현한 지도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56)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연구, p. 171.

사이 즉, 동간도와 서간도를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봉금지역 혹은 점이지역으로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한국관련 서양고지도에서 대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Andre Kim), 그림 38)는 1846년 김대건(金大建)신부가 작성해 프랑스가 소장했다. 이 지도 원본의 복제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8년 사본이 국내에 입수되어 현재 국회도서관, 독도박물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이 지도는 중국에 있던 프랑스 신부들에게 조선 입국 경로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기 직전 북경의 프랑스 영사 드 몽티니(De Montigny)에게 전달했다.

이 지도는 1849년 프랑스로 옮겨졌으며, 185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엄격히 말해서 이 지도는 김대건 신부의 친필지도라기 보다는, 그의 지도를 가지고 프랑스의 마테 브룬(Victor Adolphe Malte-Brun)신부가 다시 필사한 것이다. 사용된 종이 역시 서양 종이이며, 한반도의 경계 위에 간도지역을 따로 묶어 봉금지대로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윗부분에 아주 넓게 ‘desert de Piran’ 과 ‘desert de Pienmen’이라고 하여 무인지대(봉금지대)를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압록강, 두만강 대안지역의 봉금지대를 표시했다는 것은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지도를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⁵⁷⁾

57) 박선영, 2004, “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pp.228~229.



그림 37. 중국지도(L'Empire de la Chine), 부분
1751년, 프랑스, Didier Robert de Vaugo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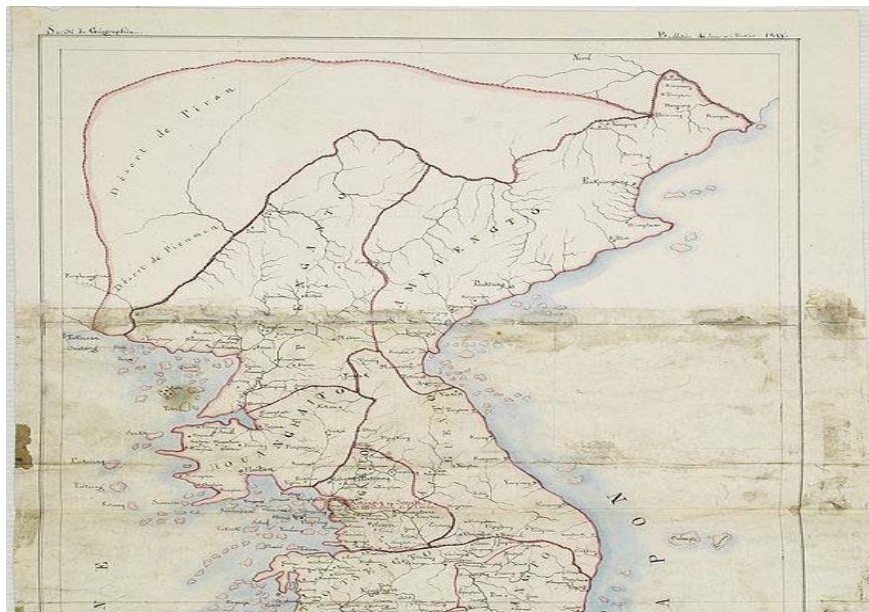


그림 38.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부분
1846년, 프랑스. Victor Adolphe Malte-Brun

10.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

국경선 표시가 없는 지도는 498점의 지도 중 총 45점으로 이들 지도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주제로 한 소축적지도가 대부분으로 18세기의 지도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하계망과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산줄기 또는 연속적인 산맥 등을 표시한 복잡한 지도부터 단순히 회화적인 느낌의 산맥만이 표기된 지도까지 다양하다.

전자는 1771년 프랑스의 본느(Bonne)가 제작한 동아시아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 그림 40)에서처럼 우리나라 부분이 비교적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빌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하계망(河系網)이 조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후자는 단순한 채색으로써 경계를 구분하고 있거나, 한·중국에 연결되어있는 산맥줄기만을 회화적으로 그린 지도들이 있다. 이러한 지도는 1772년 프랑스의 보공디(Didier Robert de Vaugondy)의 아시아지도 “Carte des Parties Nord et est de l’Asie qui Comprend les Cotes de la Russie Aslatique le”(그림 41)와 “Nouvelle Representation des Cotes Nord et est de l’Asie”(그림 42)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한·중간의 경계가 없는 지도들 또한 경계를 가지는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경선이 없는 지도의 유형은 대다수가 동아시아지도였지만, 다양한 축척의 지도에서도 나타났다. 1747년 영국의 엠마뉴엘 보웬(Emanuel Bowen)이 제작한 아시아지도(An Accurate Map of Asia, 그림 39)와 1786년 프랑스의 당빌(d’Anville)이 제작한 한국지도(China Nebst Corea und den Benachbarten Laendern der Tartarey Aus Denen Karten Genommen) 같이 한국만을 나타낸 지도에도 국경선이 없는 경계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본느와 보공디의 지도들 중에서도 한·중간의 국경선이 없는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지도제작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지도제작자들이 제작한 여러 유형의 지도 중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아시아지도(An Accurate Map of Asia), 부분
1747년, 영국, Emanuel Bowen



그림 40. 동아시아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 부분
1771년, 프랑스, Bonne



그림 41. 아시아지도(Carte des Parties nord et est de l'Asie qui Comprend les Cotes de la Russie Asiatique le), 부분
1772년, 프랑스, Didier Robert de Vaugondy



그림 42. 아시아지도(Nouvelle Representation des cotes Nord et est de l'Asie), 부분
1772년, 프랑스, Didier Robert de Vaugondy

제4장 북방영토의 주요지명

-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지명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북방영토의 주요지명으로 보았다. 이러한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 북방영토 주요 지명의 표시유무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북방영토에 대한 한계와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산천의 조종으로 인식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발상지로 인정되어 국가 사전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백두산은 매우 험난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백두산에 직접 올라가본 사람은 드물고, 등반하는 일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백두산을 직접 유람하고 남긴 기록은 많지 않는 편이다. 백두산 유람에 대한 기록은 백두산정계비의 수립 이후, 즉 18세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백두산에 대한 관심은 조선과 청국 사이의 국경 문제와 함께 조선 지식인의 중화계승의식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나아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백두산을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영토적 지표로 인식하였다.⁵⁸⁾ 그 결과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 영토로서의 백두산은 더욱 의미를 가지며, 백두산의 지명에 대한 변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의 지명은 ‘칸카이(Kian Kiai)’, ‘칸카(Kyan ka)’, ‘카산(Kiashan)’, ‘칸카푸(Kyan karpu)’ 등 다양한 중국식 발음을 특징으로 가진다. 이는 이 당시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의 명칭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며, 1717년(강희 56년)에 완성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⁵⁹⁾를

58) 정육재, “2010. 10,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백두산 여행과 간도 인식,” 장서각 제2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 171.

59) 프랑스예수회 선교사 레지(1663~1738)가 청나라 강희제의 지시를 받아 1708년부터 1716년까지 약8년에 걸쳐서 중국전역을 현지 답사하며 측지해 황여전람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 제작 시 조선의 지도

바탕으로 제작한 당빌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에 나타난 백두산의 지명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서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황여전람도에 나타나는 지명 중 중국 본토는 한자로 표기했으나 그 외 지역은 만주 문자로 표기했다. 특히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는 국경을 동북(두만강 북쪽)의 녹둔도까지 보고 있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 책정에 대한 국경문제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몇몇 대표적인 지도의 압록강의 명칭은 ‘R. d Yalo’, ‘Yalu-Kian’, ‘Yalu R.’, ‘Yalu-Kiang’ 두만강은 ‘R. Tuman’, ‘Tumen R.’ 백두산은 ‘Kian Kiai’, ‘Kyan ka’, ‘Kiashan’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양고지도에서 이 세 곳을 모두 표기한 지도는 다양하지 않았으며 이중 한·두개만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1745년 제작된 한국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u-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ee, 그림 44)에는 두만강을 제외하고 압록강을 ‘Yalu-Kiang’, 백두산을 ‘Kyan karpu’으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백두산을 ‘Kyan karpu’으로 표기한 지도는 1750년 독일의 니콜라스(Nicolaus)가 제작한 관동, 요동 및 한국지도(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그림 45)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두만강을 뺀 압록강이 ‘Yalu-Kiang’, 백두산이 ‘Kyan karpu’로 표기 되어있다. 한·중간의 경계는 압록강·두만강 이북으로 표시되어있다. 전자를 바탕으로 니콜라스가 지도를(그림 45) 제작한 것으로 짐작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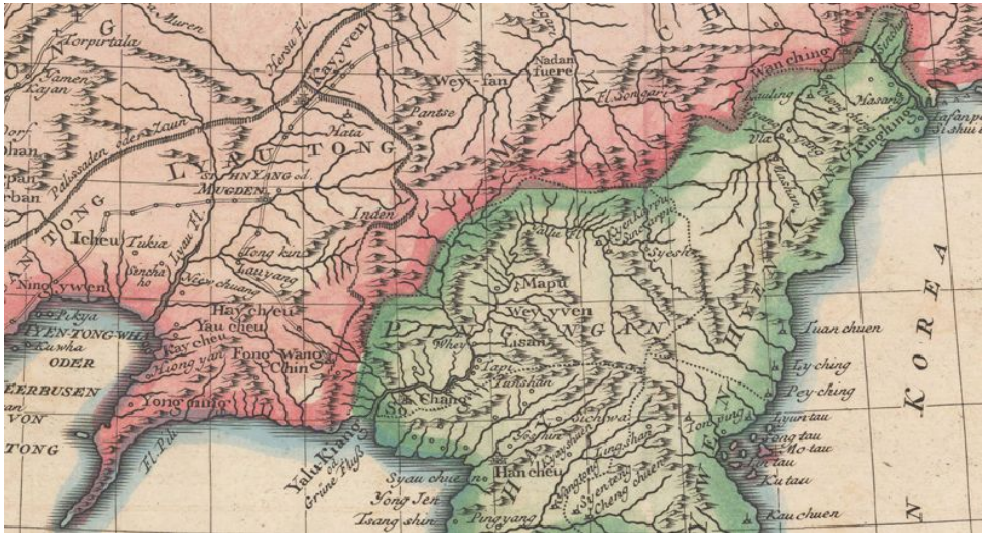
도 참고로 사용되었으며 이 지도와 선교사들이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1735년에는 당빌의 “중국통사”를 만든다. 이 책에 나오는 ‘한국전도’는 한국의 북방영토, 독도 등의 영토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압록강·백두산 부분 확대)



그림 44. 한국지도(Carte de la Province de Quantong ou Lyau-tong et du royaume de Kau-li ou Coree)속의 우리나라, 부분
1745년, USC Library



(압록강·백두산 부분 확대)



그림 45. 관동, 요동 및 한국지도(Karte von der Provinz Quantong oder Lyau-tong und dem Koenigreiche Kau-li oder Korea nach der Englic)

속의 우리나라, 부분

1750년, 독일, Nicolaus

또한 1790년 영국의 애넌(Anon)이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China, Contains 15 Subject Provinces, including the 2 Islands of Hainan / Formosa and the Tributary, 그림 46)에는 압록강을 제외하고 두만강은 'R. Tuman', 백두산은 'Kiashan'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주 흡사한 지도로 1834년 미국의 워커(Walker, Samuel)가 제작한 동아시아지도(china, 그림 47) 또한 백두산만을 'Kiashan'으로 표기 하였다. 실선(전자)과 점선(후자)으로 표시된 이 두 지도의 한·중 국경은 모두 압록강·두만강 이북으로 표시되어있다. 이들 간의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 전자의 지도가 후자의 지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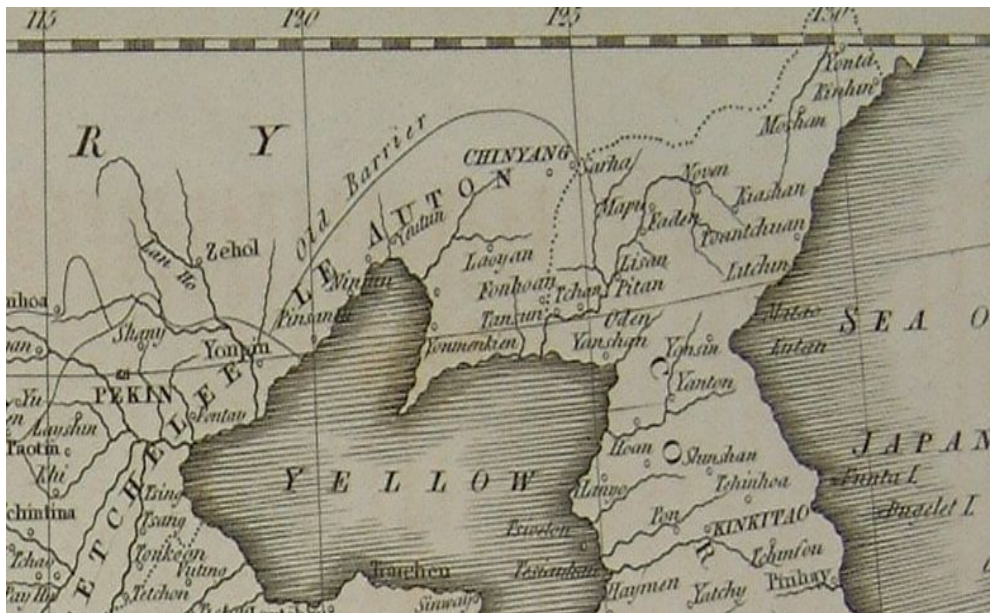
또한 북방영토의 주요 지명의 표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중국식 발음에서 벗어나 한국식 발음을 병기하거나 한국식 발음만을 표시한 지도 또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 지도는 1904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된 극동지도(Asia-atlas(Far East)-general, 그림 46)로 요동,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orea'로 표기되어 있고 전체적인 윤곽인 매우 정교하여 최신의 측량 성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함경, 평안 등 도(道)의 이름이 한국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도 우리식 발음인 'Paik Do San'으로 표기되고 괄호안에 'Long white Mt.(장백산)'라 하여 우리나라 명칭 위주로 표기했다. 압록강은 중국식 표기인 'Yalu Riv'와 더불어 괄호 안에 'Am nok gan'이라 하여 한국 발음의 지명도 병기하였다. 중국에서 발해만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Korea Bay(한국만)'라 표기되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두만강 이북으로 그어져 있다.



(두만강·백두산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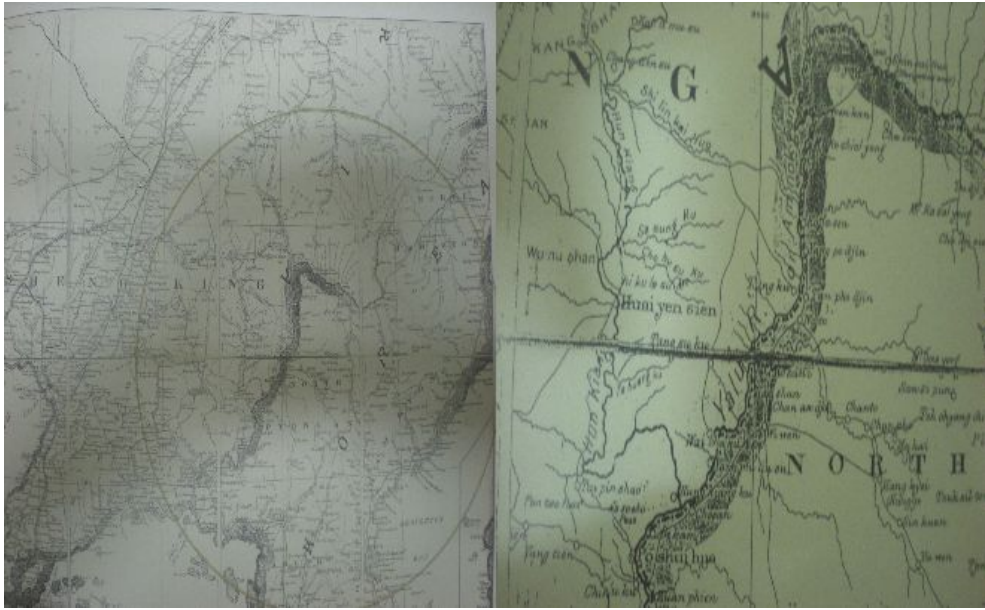
그림 46. 동아시아지도(China, Contains 15 Subject Provinces, including the 2 Islands of Hainan / Formosa and the Tributary)속의 우리나라, 부분
1790년, 영국, Anon



(백두산 부분 확대)



그림 47. 동아시아지도(China)속의 우리나라, 부분
1834년, 미국, Walker. Samuel



(압록강·두만강·백두산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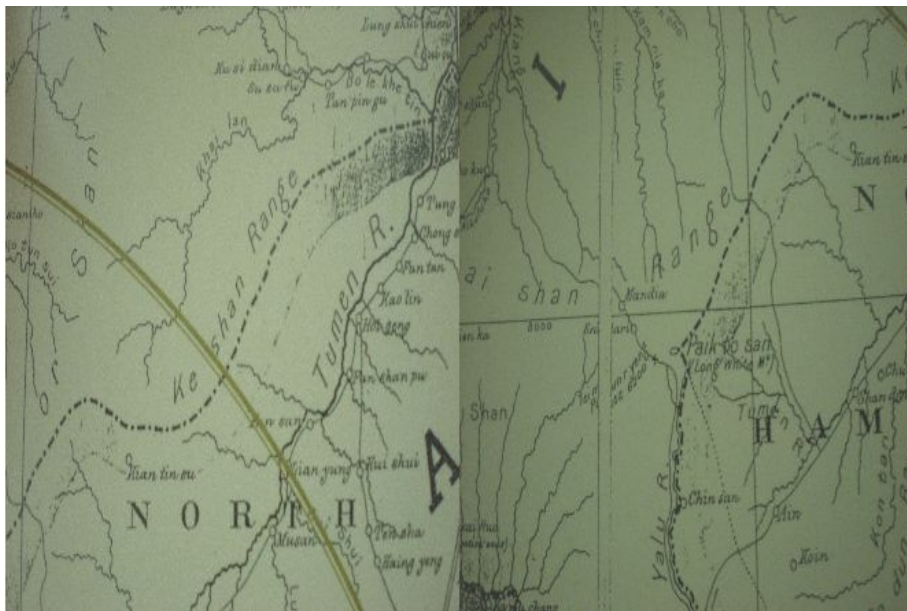


그림 48. 동아시아지도(Asia-Atlas(Far East)-General)속의 우리나라
1904년, 영국, Stanfords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상에 게재되어 있는 498종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한·중간의 국경인식 및 표기에 대하여 제작시기·유형별로 분석하였다. 16세기에 들어가면서 극동 아시아의 정보는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유럽사회에 전달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달리 유럽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17세기까지 서양고지도속에서는 우리나라의 형태만이 있을 뿐이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한·중간의 국경과 간도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간도영역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지만 요동지방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양고지도에서 간도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지만 오늘날과는 국경선이 다른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를 가지는 지도들은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 연도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비교적 근대에 제작된 지도가 많았다고 전체의 69%를 차지하였다. 또한 간도를 완전히 포함하는 ‘간도 포함 경계’를 가진 지도는 18~19세기에 제작된 지도가 가장 많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후자는 전자와 달리 20세기로 갈수록 점차 그 수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제국주의에 힘입어 지도 제작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19세기 후반 지도 제작이 산업화·과학화되면서 정밀하고, 보다 정확한 지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한·중간의 경계는 크게 레지선(Regis선), 당빌선(d’Anville선), 본느선(Bonne선)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국경분류방식으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할 시 간도의 의의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임을 취사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 가지 분류 외에 자체적으로 추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

구에 적용할 필요성을 가지고 세분화한 경계를 토대로 분석하여 ‘압록강·두만강 부근 경계’ 226점 중에서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을 가진 지도의 수는 총 중 53점(23%), 레지(Regis)선 경계 유형의 지도 수는 59점(26%), 3) 당빌(d’Anville)선 경계 유형은 72점(32%), 타듀(Tardieu)선 경계 유형은 42점(19%), ‘간도포함 경계’ 182점 중에서 보웬(Bowen)선 경계 유형은 47점(26%), 본느(Bonne)선 경계 유형은 73점(40%), 티즈데일(H. Teesdale)선 경계 유형은 62점(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체 498점의 지도 중 봉금지역 표시 경계 유형은 35점(7%),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은 45점(9%)이 나타났다.

또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북방영토의 주요지명으로는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이 있는데 이들 지명의 표시유무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북방영토에 대한 한계와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압록강의 명칭은 ‘R. d Yalo’, ‘Yalu-Kian’, ‘Yalu R..’, ‘Yalu-Kiang’ 두만강은 ‘R. Tuman’, ‘Tumen R.’ 백두산은 ‘Kian Kiai’, ‘Kyan ka’, ‘Kiashan’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백두산의 경우 ‘칸카이(Kian Kiai)’, ‘칸카(Kyan ka)’, ‘까산(Kiashan)’, ‘칸 캅(Kyan karpu)’ 등 다양한 발음을 특징으로 가진다. 하지만 이 세 지명 모두를 표기한 지도는 다양하지 않으며 이 중 한·두개만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북방영토의 주요 지명의 표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중국식 발음에서 벗어나 한국식 발음을 병기하거나 한국식 발음만을 표시한 지도 또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신의 측량 성과가 반영되어 함경, 평안 등 우리나라의 여러 도(道)의 이름이 한국 발음으로 표기한 지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중간의 경계에 관하여 특정 웹사이트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 약 500여종의 다양한 서양 고지도를 제작 시기와 국가별로 살펴본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서양고지도에 대한 연구로 한·중 경계 및 북방영토의 연구가 보다 심화·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Gando on Old Western Maps -Focusing on Maps on Tmeccakorea's Website-

Lee, Jae-eun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part of Manchuria which located in northern Mt. Baekdu, Kando divided with west Kando and east Kando. Mostly, Kando means north Kando(East Kando) that is we say commonly 'Yanbain', the autonomous district of ethnic Koreans which located in east of Jilin, China. In the view of topography, Jangbaek mountain range(main mountain is Mt. Baekdu) located southwest of Kando and Tumen river across south part of Kando.

The location and form of the border which shown on the map is include history and identity of one country, and also change continually. Especially, the study for location of Korea-China border and shape of north territory through western old map is helpful to

understand more objective view. The study for borderline between Korea and China in Korean old map is the mainstream of that kind of study, not a study through western map. All of old maps can be defined as a result of realization made by all kinds of information about other countries in that time. In this point of view, the mark shown on a western old map in regard to Korea is so important, and also that can be an important information for study about the origin of our country name, name of 'East Sea', 'Dok-do' problem and north territory problem. From the Great Age of Navigation in 1500's to the bottom of 1600's, we can hardly find the western old map in that time which contains information about Korea.

After that, except a few maps, even if Korea is marked on a map, the Korea is marked like an island in a map to the middle of 1700's, and also there are a lot of mistakes about names of cities and provinces.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how it is expressed in old western maps along with modern consciousness about territory, growing interest and imperialism, along with emerging and growing nationalistic consciousness at that time, especially between Korea and China. The basic data of this study were posted on a web site (www.tmecca.co.kr), based on these 1000 maps, I analyzed 498 maps for study by age, year, country and the type of border lin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ypes of these maps are Asia, East Asia and China and I used detail maps for Korea.

I selected maps which contain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s a result, most of them occupying the number one, of the boundary near the Amnokgang-Dumangang, the boundary points for a total of 226 were composed of 498 kinds, including liver and 182 boundary points near the Amnokgang-Dumangang border and then take the largest number. but, these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a total of 35 maps with neutral boundary type map displayed, the map border, there is no indication was found that a total of 45 maps.

By these maps, we can know most old western maps partly marked Gan-do as Korean territory, and this expression is common in 18th age, and after gradually decrease. Based on these western old map, I departmentalize type of borderline between Korea and China, Amnokgang-Dumangang boundary type, Regis's line boundary type, d'Anville line boundary type, Tardieu line boundary type, Bowen line boundary type, Bonne line boundary type, Teesdale line boundary type, neutral boundary type, maps without border line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n connection with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examine about 498 old western maps and classified by year and country, posted on Tmecca Korea's web site and Finally taking this opportunity, I hope we can approach more objective when we study about Gan-do problem as a territorial dispute.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서정철 외, 1996,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서정철 외, 2004, (European의 상상) 꼬레아 : 서정철·김인환 기증 서양고지도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 오인동, 2004, 초기 서양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표기, (내일을 여는)역사 제 18호.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시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연구.
- 오인동, 2008, 꼬레아, 코리아 -서양이 부른 우리 국호의 역사-, 책과 함께.
- 서정철 외, 2010, 지도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 김득황, 2003, 잊혀진 고토, 만주의 역, 삶과 꿈.

2. 학술지 및 학위논문

- 배우성, 2007, “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 역사와 경계 제65집, 부산경남사학회, pp. 27~62.
- 박선영, 2004, “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pp. 199~234.

- 박선영, 2007, “ 역사(歷史)의 운명(運命) -간도협약(間島協約) 체결(締結)의 역사(歷史)와 현장-, ”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p. 261~274.
- 신주백, 2007, “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pp. 63~64.
- 심현용, 2005, “ 근대 조·러 국경획정과 영토·이주민 문제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중심으로-, ” 동북역사재단, 동북역사논총, 북방사논문 12책 6호, pp. 281~326.
- 송용덕, 2007, “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 역사와 현실 제64호, 한국역사연구회, pp. 127~159.
- 이상태, 2007, “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 역사와 실학, 제33집, 역사실학회, pp. 75~119.
- 양보경, 1996, “ 고지도 보급 사업의 현황과 전망, ” 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통권 제 173호, 국토연구원, p.64~73.
- 양보경, 1997, “ 고지도와 역사 연구, ” 역사와현실 제26권, 한국역사연구회, p. 263~281.
- 이성환, 1999, “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 일본학지 제19집, 일본연구학회, p.119~141.
- 이성환, 2008, “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 563~588.
- 유장근, 200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49), - 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역사재단, 中 “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 분석 -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연구를 중심으로-, ” 김형중, p. 111~138.
- 정인철, 2008, “ 서양 중세 세계지도에 표현된 지상낙원의 지도학적 연구, ”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412~431.
- 정인철, 2010, “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표현 유형, ” 대한지리학회

- 지 제45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pp. 165~183.
- 정옥재, 2010, “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백두산 여행과 간도 인식, ” 장서각 제2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 169~192.
- 조병현, 이범관, 김홍택, 2005, “ 국제법상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고찰,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적학회, pp. 114~134.
- 최장근, 2008, “ 간도와 독도 영토문제의 비교분석,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 247~264.

3. 웹사이트

- | | |
|-------------|---|
| 동북아역사자료센터 | (http://www.hflib.kr) |
| 파인드코리아 | (http://findcorea.co.kr) |
| 티메카코리아 | (http://www.tmecca.co.kr) |
| 백산학회 | (http://www.paeksan.com) |
|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
| 국사편찬위원회 | (http://db.history.go.kr) |
| 국회전자도서관 | (https://u-lib.nanet.go.kr) |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 (http://www.gando.or.kr) |
| 간도 땅찾기 운동본부 | (http://www.gandousa.org) |
| 간도회복추진위원회 | (http://cafe.naver.com/coreagando.cafe) |